일본어로 풀어보는 일본사회: 메이와쿠(迷惑)

보편적 가치와 윤리적 체계 혹은 도덕적 의무처럼 일본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'단체성' 이다.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조직과 단체에 잘 조화할 수 있는 소양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일본이다.

□ 조직 안에서의 소통 방법

○ 단체성은 일본 어린이들이 일찍부터 몸에 익히는 규범으로 우리나라 혹은 서양 어린들이 교육받는 도덕교육과 기본적으로 같은 성격임

- 서양인과 일본인은 인생의 출발점과 배우는 것부터 그 방향을 달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
- 서양 사람들은 자신이라는 인격에 먼저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확립하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보면, 일본 사람들은 단체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최소한의 의무조건인 메이와쿠니나라나이(迷惑にならない, 폐가 되지 않는)를 가정과 학교를 통해 학습하며, 단체에서 잘 협조하고 조화를 이루어가는 '융화술' 을 배우는 것부터 시작함

□ 폐를 끼치지 말아라

○ 메이와쿠라는 단어는 일본 사회 전반에 걸쳐 쉽게 찾아 볼 수 있음

- 휴대전화 혹은 컴퓨터로 들어오는 불필요하고 귀찮은 스팸메일을 일본에서는 메이와쿠 메일(迷惑メール)이라고 함

-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메이와쿠 메일은 2002년 7월에 제정된 총무성 특정전자메일법에 의해 적발되면 최대 3,000만 엔(기관의 경우)이하의 벌금을 내야함

* 특정전자메일법은 2005년에 처벌 대상 범위가 확대되면서 임의 주소로의 메일발송 금지 조항이 추가되었으며, 2008년에는 사전에 동의를 받은 사람에게만 메일발송이 가능하다는 신규항목이 도입되었음

○ 인간관계에 있어 가끔은 신세도 지고 그 신세를 훗날 갚기도 하며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정서라면, 일본은 주위사람에게 선뜻 신세를 지려하지 않음

- 그것이 상대에게 폐를 끼치는 것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더욱 그럴 것이고 빚이 되어 부담스럽게 느끼고 싶지 않기 때문일 것임

* 연말에 연하장을 보내지 못했는데 상대로부터 연하장을 받으면 나중에라도 꼭 답장의 연하장을 보냄

○ 국가와 국민에 큰 폐를 끼쳤다면 목숨을 잃어도 동정은 없다

- 지난 이라크전쟁 발발 후 인질로 잡혔던 일본인에 대한 일본 국내의 여론은 의외로 냉담했음. 다행히 풀려나기는 했으나 조용히 숨죽이고 귀국할 수밖에 없었음. 국민에게 폐를 끼쳐 죄송하다는 짧은 한마디를 남기고..

* 전쟁 발발과 함께 일본 외무성은 집요할 정도로 중동지역 여행을 삼가 할 것을 국민에게 홍보했으나 그것을 지키지 않고 행동한 것에 대한 책임은 개인에게 있고 본인의 무분별한 행동으로 일본 전체에 폐를 끼쳤기 때문에 여론은 그들에게 전혀 동정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음. 그리고 불행하게도 이라크 내 테러조직에 납치되었다가 끝내 목숨을 잃은 일본인 고다(香田)씨의 유가족이 TV 앞에서 국민에게 한 말은 여러분께 폐를 끼쳐 죄송

하다는 말뿐이었음. 비명에 간 고인도 그런 생각을 했을까?

- 예측불허의 상황 연출로 인한 피해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행동으로 집단에게 폐를 끼치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 사회가 일본임

* 호우주의보 등의 경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에서 조난되었다가 구조된 사람은 가장 먼저 관련되는 모든 사람에게 폐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을 함. 회사경영이 어려워져 사임에까지 이르게 된 사장은 회사 구성원에게 가장 먼저 폐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을 함

- 이러한 메이와쿠에 대한 의식은 유치원 교육에서부터 철저하게 훈련받고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각인됨

□ 일본 국내용 메이와쿠

○ 일본 사람의 행동양식의 가장 기본이 되는 '폐를 끼쳐서는 안 된다' 는 것이 국경을 넘으면 달라지는 모양임

- 과거 전쟁을 통해 주변국에게 안겨준 엄청난 폐는 물론이고 지금도 인정하지 않고 왜곡하려 하는 것을 보면 메이와쿠는 어디까지나 국내용이 인듯함. 앞으로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일본 고유의 메이와쿠 문화를 기대해 봄